

기혼 여성의 우울증상에 대한 취약성: 스트레스 경험 및 대처과정을 중심으로

김은정 · 오경자 · 하은혜

연세대학교

본 연구는 기혼여성들의 우울증상에 대한 취약성을 일상생활 스트레스 경험과 이에 대한 대처 과정을 통해 탐색해 보았다. 서울 시내 및 근교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60대 미만의 기혼 여성 5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유형 및 정도, 지각된 사회적 지지정도,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식, 자기 효능감 및 우울증상에 대해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연구대상의 평균 우울증상 수준은 CES-D 점수 17.84였고 24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23.0%가 우울증상 집단에 포함되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취약성을 보였다. 둘째, 기혼 여성들의 절반이상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유형은 주로 남편과의 의견 및 성격차이로 인한 불화, 경제적인 어려움 및 신체적인 노화과정 및 외모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 비교에서는 특히 40,50대 주부는 자녀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하였다.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 정도는 전반적으로 학력과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 자녀 수가 많은 집단, 취업 주부 및 40대, 50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셋째, 스트레스 지각 수준 뿐만 아니라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정도 및 자기 효능감이 현재의 우울증상 수준을 의미있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기혼 여성들의 우울증상에 대한 취약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와 관련된 스트레스 경험 및 심리사회적 요인들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우울증상은 우울한 기분,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동기 및 신체적인 기능의 저하등을 동반하며,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울증에 대한 유병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들은 우울해지면 생활의 활기가 저하되고 모든 일에 의욕이나 흥미가 사라지며, 슬프게 느껴지는 일과 걱정거리가 많아지고 주위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게 된다. 최근 들어, 주부들의 심한 우울증상과 자살행동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울증상은 바로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경험과 관련된 심리적 어려움 중 대표적인 것으로 꼽힌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울증상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최근 주부들의 우울증상의 증가는 경제적인 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가장의 실직, 높은 물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자녀들의 교육 문제

등으로 주부가 겪는 고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우울증은 전반적으로 다른 정신병리에 비해 유병율이 높고 특히 여성의 유병율이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신과적인 역학조사는 다수 있으나,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는 부족하고 제한적이다. 그 중 유계준, 신승철, 전상배, 윤관수, 김만권, 문수재와 이민준(199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남성의 우울증 비율은 전체 11.7%인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비율은 전체 15.5%로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1.3배 높았다. 일반적으로 여성 우울증 유병율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되어 특히 청소년기 후기부터 두드러지게 증가되는데, 여성 유병율의 남성에 대한 상대적인 증가는 25-44세사이에 가장 두드러지며, 65세이상에서 가장 낮아진다(DSM-IV, 1994).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연령증가와 우울증에 대한 위험을 증가간의 상관관계를 일관적으로 보고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다는 연령증가와 함께 여성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적이고 심리적인 변화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25세-44세 사이의 높은 상대적 유별율은 인생주기에 따른 변화과정, 결혼 및 직업의 유무, 자녀 출산 및 양육 등 성역할요인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각 요인에 대한 경험적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들의 우울증상은 여성의 주요 발달과제인 자녀의 출산 및 양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출산 후에는 정상적인 여성도 경미한 수준의 우울증상을 보이며, 산후 우울증의 비율은 약 12%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O'Hara, 1986). 출산 호르몬의 변화, 출산과정의 고통, 출산후 변화된 상황에 대한 적응 뿐만 아니라 이후에 지속되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해 남성들보다 훨씬 더 적응이 어려워 진다(Rubin, 1983). 여성의 직업 유무와 관계없이 어린 자녀를 둔 여성들은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사기 저하를 보이며, 이들의 약 6%가 임상적인 수준의 우울증상을 보인다(Weissman, Leaf, & Bruce, 1987).

둘째,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기혼여성들에게는 직장과 가정에서의 이중역할 부담이 주요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들의 우울증상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취업에 대해서는 역할확장(role expansion)의 관점에서는 직업활동을 통해 개인의 자원과 성취경험이 증가됨으로써 개인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Wethington & Kellser, 1989)하는 반면, 역할과중의 관점(overload perspectives)에서는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경우, 과중한 부담을 갖게 되어 오히려 스트레스가 증가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취업주부들은 아내, 어머니, 양육책임자, 직업인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로 가정에서 여성의 부담은 상당히 증가되고 아울러 역할들간의 상충은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또한 기혼 여성들의 가사 노동에 대한 가치가 저하된다거나, 가족 구성원들의 지지나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울감이 증가될 수 있다.

셋째,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은 여성들의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을 적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 행동에는 대인관계에서 타인을 돌보고 배려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아내, 어머니의 역할과 지역사회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고통과 욕구에 반응하길 기대받으

며 살게 된다.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결혼, 자녀 및 친구관계로부터 중요한 만족감을 얻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우는 관계내에서의 갈등 및 긴장감과 스트레스는 다른 영역에서의 문제들보다 우울증상의 유발에 더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며, 대인관계에서의 역할수행과 정신건강간에서는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인다(McGrath et al, 1990). 여성들은 결혼 후에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증가되는데 이로 인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얻어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이 완충될 수 있지만, 오히려 증가된 사회적 관계가 하나의 스트레스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부모로서의 역할전환과정에서 더 많은 변화를 겪게 되어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다른 미혼 혹은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들에 비해 가족구성원들로부터 많은 역할요구를 받고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기존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요인인 사회적지지 또한 얻은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이외에도 여성의 성역할 사회화 과정은 다양한 종류의 부적응적인 특성을 야기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우울증상을 유발하거나 유지시킬 수 있는 위협요인인 스트레스에 대한 부적응적인 대처 양식 및 부적응적인 지각으로 이끌 수 있다(Nolen-Hoeksema, 1987).

마지막으로 여성의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부부관계를 들 수 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해를 받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는 반면(Vanfossen, 1981),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결혼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고 이로 인한 정서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McGrath et al, 1990). 구체적으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기혼 여성들은 미혼 여성들에 비해 더 많은 우울증상을 보고하였으며(Aneschensel, 1985), 임상적으로 우울한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한 결과, 이들은 부인으로서의 역할과 능력있는 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안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 많은 좌절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들은 또한 불평등하고 정서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관계 속에서 외롭고 소외된 감정을 많이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Weissman, Leaf, Bruce와 Florio(1988)의 연구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결혼 그 자체는 여성들 보다 남성들에게 더 강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며, 불행한 결혼은 남성보

다 여성의 정신건강에 더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불행한 결혼관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상의 유발가능성이 3배 이상 높았다.

이와 같이 여성의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은 여성의 사회적 기능 및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기능 및 역할과 이와 관련된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경험을 탐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기혼 여성의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맥락내에서 다양한 역할 및 갈등과 같은 특징적인 스트레스 경험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스트레스 대처과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을 탐색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경험들과 이에 대한 적응과정은 개인의 발달단계에 따라, 개인이 처한 특정한 상황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성격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 후 생활환경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발달적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 및 역할의 변화는 심리적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주부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은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시킬 수 있다. 우울한 사람들이 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 및 갈등 영역은 인생의 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년여성에서는 남편의 의도, 사업실패 및 실직 등 남편과의 갈등이 두드러지며, 50대여성에서는 자녀와의 갈등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수, 1976). 갱년기 우울증의 갈등영역을 조사한 결과,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신체 질병 및 손상, 자녀와의 이별, 배우자나 친척의 사망, 은퇴순이었다(손봉용, 1979). 그러나 80, 90년대 이후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이 변화되었고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기혼 여성들이 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구체적인 유형도 변화되었을 것이다. 또한 특정한 시기의 사회 경제적 특성 및 상황도 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데, 최근의 경제적인 위기 상황을 맞이해 주부들이 겪는 스트레스 유형은 이전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포함된다.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이에 대한 대처 행동 그리고 스

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 주고 보다 적극적인 대처 행동을 촉진시켜주는 요인들이 있다. 이들은 스트레스 대처 과정에 대한 대표적인 Folkman과 Lazarus(1980)의 모델에 기초한 많은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었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행동은 스트레스의 영향을 변화시키기 위해 개인이 시도하는 다양한 행동과정으로서 일반적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문제해결중심적인 방식이 적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스트레스의 유형이나 원인 그리고 상황적인 측면을 평가하여 이에 맞는 적절한 대처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스트레스로 인한 부적응 증상 유발과 가장 관련이 높은 대처 행동은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대처 행동들로서 스트레스 상황을 회피하고 화를 내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등의 부적응적인 정서반응 및 행동을 말한다.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요인으로는 대표적으로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사회적 지지체계는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구체적으로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란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되고 효과적인 대처 행동을 하는데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존중과 이해를 받고 있다는 지각을 증가시켜준다. 이외에도 개인의 자기 효능감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통제감과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말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수많은 스트레스 경험에 노출되어 있는 기혼 여성들은 자신의 특정한 스트레스 경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체제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대처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경험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켜주고 적극적인 대처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주위의 지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를 둔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겪는 구체적인 스트레스 경험들을 확인하고 스트레스 대처과정에 중요한 사회적 지지의 정도, 자기 효능감 및 대처 행동을 평가해 봄으로써 이들의 우울증상에 대한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혼 여성들의 우울증상에 대한 취약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

할 수 있고 기존 여성들의 스트레스 경험을 이해하고 우울증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대처과정 변인들을 확인해 봄으로써 이들의 우울증상에 대한 취약성을 변화시키고 우울증상을 치료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설문조사 절차

서울시내 및 근교에 거주하는 20대에서 60대 미만의 자녀를 둔 기존 여성들을 대상으로 “가족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학년별로 균등하게 설문지를 배포한 뒤 학생들의 어머니로 하여금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대 초반의 기존여성들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D기업의 기존 여성사원을 무선을 표집하였다. 본 연구자료를 서울시내거주 여성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연령분포, 학력분포, 직업유무 및 월수입)들에 관한 통계자료와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총 591명의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에 관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2. 조사내용 및 측정도구

본 연구의 설문 내용은 크게 세가지 항목으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 개인이 경험하는 생활 스트레스에 관한 평가를 하기 위해 최근 6개월간에 다양한 항목의 생활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여부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의 정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개인의 우울증상의 수준을 확인하였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스트레스 대처과정과 관련되는 심리사회적변인들에 대한 측정으로서 주변사람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도, 자기 효능감,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양식 등이 포함되었다.

1) 생활사건 스트레스: 유완상, 백기청, 양병환과 김광일(1994)이 제작한 주부 생활사건 스트레스 척도(52개의 생활사건 문항)에 기초하여 스트레스 항목을 총 8개 유형(자신과 관련된 스트레스, 남편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 관련된 스트레스, 남편과의 관계에 관련된 스트레스, 부모 및 친지들과의 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 경제적 문제, 가족 및 주위사람들의 질병, 가족 및 주위 사람들의 사망)으로 나누고 관련된 스트레스 문항들을 포함시켰다. 각 스트레스 문항에 대해 과거 6개월 이내에 경험했는지 여부를 예, 아니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변인	구분	사례수	%
연령	20세-29세	68	11.6
	30세-39세	295	50.4
	40세-49세	130	22.2
	50세-59세	92	15.7
학력	국졸	12	2.0
	중졸	48	8.1
	고졸	301	51.1
	대졸	219	37.2
	대학원졸	9	1.5
직업유무	전업주부	392	69.6
	취업주부	171	30.4
월수입	100만원 미만	25	4.3
	100-200만원	195	33.6
	200-300만원	210	36.2
	300-400만원	76	13.1
	400만원 이상	74	12.8
동거형태	부부+자녀	438	76.0
	부부+자녀+시부모 및 시댁식구	99	17.2
	부부+자녀+친정부모 및 친정식구	39	6.8
자녀수	1명	91	15.7
	2명	386	66.7
	3명 이상	102	17.6

으로 대답하게 하고, 예라고 대답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1점(전혀 받지 않았다)부터 5점(아주 많이 받았다)까지 평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로 인한 주관적인 어려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울 증후군의 역학적 연구를 위해 미국 정신보건 연구원에서 개발한 도구로서 본 연구에서는 신승철 등(198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모두 20개의 문항의 자기보고형 질문지이며,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빈도에 따라 각 문항에 대해 0(전혀 없었다)-3(매일 있었다)까지로 평정하게 되어 있어 가능한 점수 범위는 0-60점이다. 신승철 등(1987)의 연구에서 반분 신뢰도는 $r=.84$ 로 나타났고 임상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타당화 연구에서는 24점을 분할점으로 할 때 우울 집단과 비우울 집단의 분류시 kappa 값이 .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24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일관성의 신뢰도는 $\alpha=.88$ 이었다.

3)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행동: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대처 방식은 Holahan과 Moos(1987)의 대처양식 척도에 기초하여 유성은과 권정혜(1997)가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세 개의 하위척도(문제해결적인 접근, 회피적인 행동, 정서조절적인 접근)로 나누어 졌다. 각 하위 척도의 내적 일관성의 신뢰도는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각각 $\alpha=.85$, $\alpha=.62$, $\alpha=.55$ 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사회적 지지도의 평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지지 체제내에서 자신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자기 보고를 통해 평가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를 남편, 자녀, 시댁식구, 친정식구 및 친구로 나누고 각각의 대상에 대해 세가지 내용(정보의 제공, 존중의 정도 및 이해의 정도)의 지지 제공을 확인하였다. 각 항목에 대해 1점부터 5점까지 평정을 하게 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지지의 정도가 높다.

5) 자기 효능감 평가: 자신에 대한 긍정적 지각 정도 및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자기 주장 행동, 자존감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등에 관해 평가하고자 자기 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 Sherer, Maddox, Mercandante, Prentice-Dunn,

Jacobs, & Rogers, 1982)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문헌에 의하면 두개의 하위척도, 즉, 일반적인 자기 효능감(예: 나는 실패하면 더 열심히 노력한다, 나는 자립심이 강한 사람이다)과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효능감(예: 나는 내 스스로 쉽게 친구를 사귄 수 있는 능력이 있다)으로 나뉘어지는데 본 연구 결과의 요인분석 결과도 이와 일치하여 두 개의 요인을 산출해냈다. 각 문항에 대해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5점(아주 그렇다)까지 평정하게 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일관성의 신뢰도는 $\alpha=.84$ 였으며 두 개 하위 점수를 합한 총점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II. 연구결과

1. 기혼 여성들의 생활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분석

최근 6개월 동안 8개 항목에 포함된 각 스트레스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각 연령집단과 취업유무에 따라 비교해 보았다(부록 1, 2 참조). 첫째,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신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다. 구체적인 하위 항목 중 연령에 따라 가장 두드러진 증가를 보인 항목은 신체적인 노화과정에 대한 스트레스 경험이었고 반면에 신체적 외모에 대한 불만은 20대 기혼 여성의 73.0%가 경험하는 것으로서 50대의 55.1%에 비해 매우 높았다. 그리고 30,40대의 3분의 1 이상이 직장 및 사회생활에서의 과중한 업무 혹은 대인관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둘째, 남편과 관련된 스트레스 영역에서는 연령집단간 유사한 비율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남편의 잦은 이직 혹은 직장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남편의 과도한 음주가 모든 연령 집단에서 30%에서 35%사이의 비율을 보여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남편의 직장 동료 및 상사와의 불화에 대한 스트레스 항목에서도 23%에서 29% 정도의 비율을 보였다. 셋째, 자녀와 관련된 스트레스 범주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40대 기혼 여성들이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40대 기혼 여성들의 61.5%가 자녀의 학업 성적의 저하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34.8%가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느끼며, 44.5%가 자녀들의 친구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43.7%가 자녀의 시험 실패로 인한 스트레

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에게 반항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하는 비율은 47.1%로서 30대 기혼 여성들이 가장 높았고 자녀의 이성교제와 자녀의 시험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는 50대가 각각 42.9%와 50.6%로서 가장 높았다. 따라서 각 연령층이 보고한 자녀들의 문제 영역들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넷째, 남편과의 관계와에 관해서는 남편과의 의견 및 성격차이로 인한 불화와 다툼은 전 연령층에 걸쳐 56% - 65%에 이르는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20대 59.1%, 30대 56.1%, 40대 56.2% 50대 65.2%). 다섯째, 부모 및 친지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시부모와의 불화와 시댁식구와의 불화가 22.4%에서 33.0%까지로 연령이 증가될수록 증가되었다. 여섯째,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집값 상승, 물가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전 연령층에 걸쳐 50%이상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증가에 따라 수입감소로 인한 스트레스는 증가되었다. 그외 가족 및 주위 사람들의 질병은 각 연령층이 약 35% 정도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각 스트레스 항목에 대해 취업주부와 전업주부를 나누어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가 부록 2에 있다. 자신과 관련된 스트레스 항목에 대해 취업 주부들의 50%이상이 직장 및 사회생활에서의 과중한 업무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남편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전업주부에 비해 취업 주부들이 전반적으로 약간 더 높은 비율을 보였고, 자녀와 관련된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자녀의 친구관계 문제와 시험 실패에 있어서는 전업주부들이 취업 주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편과의 관계와 부모 및 친지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집단간 거의 유사한 비율을 보였으며,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 수입의 감소는 취업주부가 36.8%, 전업주부가 32.9%로 나타나 취업 주부들이 약간 더 높았던 반면, 집값 상승 및 물가인상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업주부가 53.7% 취업주부가 47.5%로 전업 주부들이 약간 더 높았다.

각 항목에 속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주관적으로 경험한 스트레스 지각 정도를 각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에 근거하여 비교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연령에 따라 스트레스 지각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스트레스 항목은 자녀와 관련된 스트레스 ($F(3,555)=17.66, p<.001$)와 총 스트레스 지각 점수 ($F(3,579)=6.11, p<.001$)로서 전반적으로 연령에 따라

증가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표 2-1). 그리고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총 스트레스 지각 점수 ($F(2,586)=4.88, p<.01$), 자녀와 관련된 스트레스 ($F(2,561)=7.57, p<.001$), 경제적인 문제 ($F(2,568)=3.85, p<.05$), 그리고 가족 및 주위사람들의 사망과 관련된 스트레스($F(2,479)=3.10, p<.05$)가 의미있게 증가되는 것을 보여주었다(표 2-2). 학력을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으로 세집단으로 나눈 뒤 집단간 비교를 해 본 결과, 학력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문제($F(2,566)=3.25, p<.05$)와 가족 및 주위사람들의 사망과 관련된 스트레스($F(2,479)=5.23, p<.01$)에 차이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이와 같은 스트레스의 지각 정도가 낮았다(표 2-3).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고졸인 집단은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자신, 남편, 자녀 및 남편 관계 스트레스가 낮았다. 또한 월수입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문제($F(2,559)=7.03, p<.001$)에 대해 월수입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지각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2-4). 그리고 취업주부들은 전업주부들에 비해 남편과 관련한 스트레스($F(1,542) =4.52, p<.05$)에 있어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5).

2.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기초한 기혼 여성들의 우울증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된 기혼 여성 591명의 우울증상의 수준은 CES-D 평균점수 17.84였고 24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총 139명(23%)이 임상적인 수준의 우울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상의 수준을 연령, 자녀 수, 학력, 월수입, 직업의 유무에 따라 비교해 보았다(표 2 참조).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학력에 따른 비교로서($F(2,586)=3.62, p<.05$), 학력이 높을수록 우울증상의 수준이 낮았다. 그 외에 연령에 따라 20대에서 50대에 이르기 까지 CES-D 점수 평균이 각각 17.35, 17.44, 18.77, 18.10으로 약간씩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자녀 수에 따른 비교결과, 1명과 3명이 각각 평균 18.35와 18.84로서 2명인 경우의 17.45보다 약간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취업주부와 전업주부도 우울증상의 수준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근거한 우울수준, 스트레스 경험 및 심리사회적 변인의 차이

표 2-1. 연령집단별 비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F	사후비교
우울수준	17.5(8.47)	17.44(8.96)	18.77(7.80)	18.10(7.94)	.83	
스트레스 총점	29.46(20.03)	35.32(30.28)	43.92(31.70)	45.00(30.64)	6.11***	1/3, 1/4
1. 자신생활	11.60(8.34)	9.02(8.03)	12.05(8.47)	12.42(9.39)	6.43***	2/3, 2/4
2. 남편관련	4.59(6.35)	5.80(8.13)	6.27(8.10)	7.02(9.52)	1.26	
3. 자녀관련	2.02(5.22)	5.44(6.72)	9.42(8.61)	8.38(8.61)	17.66***	1/2, 1/3, 1/4 2/3, 2/4
4. 남편관계	4.66(5.58)	5.48(7.52)	5.81(7.32)	6.03(6.51)	.56	
5. 부모/친지관계	2.31(3.85)	3.39(4.98)	3.57(4.78)	3.21(4.37)	1.15	
6. 경제문제	3.22(4.38)	5.14(6.14)	5.62(6.63)	5.64(6.73)	2.59	
7. 가족질병	1.41(2.17)	1.53(2.41)	1.60(2.30)	1.66(2.41)	.14	
8. 가족사망	.32(1.28)	.88(2.01)	1.00(2.14)	1.20(2.33)	2.37	

* P<. 05, ** P<. 01, *** P<. 001

표 2-2. 자녀수별 비교

자녀수	1명	2명	3명 이상	F	사후비교
우울수준	18.35(9.48)	17.45(8.38)	18.84(7.93)	1.31	
스트레스 총점	32.95(28.45)	37.44(29.78)	45.67(31.65)	4.88**	1/3, 2/3
1. 자신생활	10.63(8.92)	10.19(8.19)	11.63(9.73)	1.14	
2. 남편관련	4.94(7.33)	5.88(8.35)	7.14(8.16)	1.88	
3. 자녀관련	3.98(6.05)	6.65(7.95)	8.27(7.81)	7.57***	1/2, 1/3
4. 남편관계	5.26(7.49)	5.33(6.93)	6.72(7.28)	1.59	
5. 부모/친지관계	2.66(4.37)	3.30(4.63)	3.87(5.32)	1.60	
6. 경제문제	4.65(6.25)	4.82(5.95)	6.68(6.67)	3.85*	2/3
7. 가족질병	1.67(2.42)	1.51(2.29)	1.65(2.52)	.22	
8. 가족사망	.57(1.58)	.86(1.99)	1.35(2.49)	3.10*	

* P<. 05, ** P<. 01, *** P<. 001

표 2-3. 학력별 비교

학력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F	사후비교
우울수준	19.05(8.59)	18.43(8.88)	16.64(7.84)	3.62*	
스트레스 총점	43.85(34.54)	35.52(28.28)	39.79(30.99)	2.58	
1. 자신생활	10.93(10.28)	9.68(8.35)	11.52(8.42)	3.07*	
2. 남편관련	7.63(9.16)	5.42(7.86)	6.09(8.25)	1.94	
3. 자녀관련	6.57(8.17)	5.90(7.19)	7.29(8.28)	2.03	
4. 남편관계	7.47(8.84)	5.15(6.52)	5.57(7.25)	2.65	
5. 부모/친지관계	2.73(3.97)	3.32(4.87)	3.32(4.66)	.39	
6. 경제문제	6.97(7.16)	5.00(6.05)	4.70(5.93)	3.25*	1/3
7. 가족질병	1.21(2.16)	1.67(2.45)	1.50(2.27)	.80	
8. 가족사망	1.82(2.64)	.78(1.96)	.81(1.90)	.80	

* P<. 05, ** P<. 01, *** P<. 001

표 2-4. 월수입별 비교

월수입	200만원 이하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F	사후비교
우울수준	18.56(9.00)	17.80(8.09)	16.79(8.06)	2.00	
스트레스 총점	38.95(32.36)	37.69(29.58)	37.80(27.84)	.11	
1. 자신생활	9.72(8.35)	10.62(8.52)	11.60(9.11)	2.14	
2. 남편관련	6.95(9.33)	5.34(7.71)	5.23(6.53)	2.85	
3. 자녀관련	5.75(7.88)	6.48(7.54)	7.57(7.81)	2.34	
4. 남편관계	6.27(7.94)	5.17(6.47)	5.09(6.62)	1.69	
5. 부모/친지관계	3.22(4.57)	3.63(5.06)	2.91(4.38)	1.01	
6. 경제문제	6.34(6.15)	4.80(6.17)	3.97(5.32)	7.03***	1/2, 1/3
7. 가족질병	1.56(2.38)	1.70(2.40)	1.47(2.30)	.35	
8. 가족사망	.72(1.86)	.97(2.09)	1.05(2.18)	1.15	

* P<. 05, ** P<. 01, *** P<. 001

표 2-5. 직업유무별 비교

직업유무	전업주부	취업주부	F
우울수준	17.78(8.43)	17.79(8.69)	.00
스트레스 총점	33.66(26.38)	33.72(26.25)	.00
1. 자신생활	9.34(7.42)	9.80(7.39)	.36
2. 남편관련	5.39(7.68)	6.95(8.83)	4.52*
3. 자녀관련	6.37(7.63)	6.30(7.59)	.01
4. 남편관계	5.42(7.04)	5.74(7.23)	.24
5. 부모/친지관계	3.32(4.69)	3.22(4.79)	.06
6. 경제문제	4.73(5.63)	5.75(7.11)	3.21
7. 가족질병	1.56(2.34)	1.69(2.44)	.34
8. 가족사망	.88(2.04)	.89(2.01)	.00

* P<. 05, ** P<. 01, *** P<. 001

3. 기혼 여성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과정과 우울증상간의 관계

기혼 여성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 정도 뿐만아니라 대처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회적 지지정도 및 대처 행동들을 평가하고 현재 경험하고 있는 우울증상 수준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1)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총 5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설문조사 자료를 기초로 각 척도들간의 단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즉, 주관적으로 경험한 스트레스 정도, 대처 행동(문제해결적 행동, 회피적 행동 및 기분전환적인 행동),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정도 그리고 우울증상 수준간의 단순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우울증상의 수준을 나타내는 CES-D 점수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척도는 대처행동의 하위척도인 회피적인 대처 행동으로서 $r=.450(p<.01)$ 의 상관관계

를 보였고, 스트레스 경험 정도 및 사회적 지지와는 각각 $r=.390(p<.01)$ 과 $r=-.312(p<.01)$ 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 정도를 나타내는 자기 효능감 점수도 CES-D와 $r=-.243(p<.01)$ 로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2) 본 연구의 설문대상자 총 591명을 대상으로 인 구통계학적인 변인, 개인적인 변인(자기 효능감, 대처 행동) 및 개인간 변인(사회적 지지) 등 심리사회적 변인들이 현재의 우울증상의 수준을 어느 정도 예측해 주는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CES-D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이들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인 중다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우울증상의 수준인 CES-D 점수를 예측해주는 변인 들로는 회피적인 대처 행동이 전체 16.2%의 설명량을 나타냈고($F=97.36, p<.001$), 그외 스트레스 경험 정도, 사회적 지지 정도 및 자기 효능감 수준의

알려져 있으므로, 연령에 따른 스트레스 경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각 연령집단에 있어서 우울증상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개인이 각 스트레스 경험으로 인해 주관적인 고통을 느낀 정도는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연령에 따라 의미있게 증가하였다. 특히 40대, 50대 여성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녀와 관련된 스트레스 수준이 의미있게 높았다. 학력이 낮고 소득수준이 낮은 여성들은 특히 경제적 문제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취업주부들은 전업주부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낀다고 보고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자신의 생활과 남편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보다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자녀수의 증가에 따라서는 자녀관련 스트레스가 의미있게 증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 기혼여성들 중 스트레스를 특히 많이 지각하는 집단은 학력과 소득수준이 낮으며 자녀의 수가 많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40대, 50대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혼 여성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이러한 다양한 스트레스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우울증에 대한 여성들의 상대적인 취약성을 결정하는데 이들 스트레스 경험들이 중요하므로, 기혼 여성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기혼 여성들의 특징적인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조사와 고찰이 근본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넷째, 기혼 여성들의 우울증상의 정도 및 취약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분석한 결과, 우울증상에 대한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인 것은 스트레스에 대한 회피적 대처행동이었고 그 다음으로 스트레스 지각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주변 사람들로 부터 받은 사회적 지지의 정도와 자기 효능감 또한 우울증의 정도에 대한 추가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여성의 우울증상에 대한 취약성을 출산 및 양육과 같은 발달과업이나, 취업 혹은 결혼과 같은 생활환경 및 역할의 변화 등의 요인으로 설명하는 입장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점이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혹은 남성들에 비해 기혼 여성들이 경험하는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경험도 우울증상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개인의 적응적인 대처 능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혼 여성들의 우울증상에 대한 취약성을 연구할 때에는 이들이 처한 생

활환경이나 역할등과 같은 객관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개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능력 및 대처와 관련된 잠재적인 능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에서 표집된 20대 이상 60세 미만의 기혼 여성들 중 23%가 임상적 우울증의 수준에 해당하는 CES-D 24 점 이상의 높은 우울증상을 보인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기혼 여성들이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도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기혼 여성들의 우울증상과 관련된 중요한 위험요인들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구체적으로 연령, 취업유무 및 학력 등 다양한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에 따른 특정한 위험요인들을 고려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은 여성들은 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반면, 이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켜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 및 개인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특히 우울증에 취약한 집단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와 같이 특정적인 위험 집단에 대한 연구과 예방적인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는 우울한 여성들을 위한 심리적 개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구체적으로 기혼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스트레스 경험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를 회피하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심리적인 잠재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개인적인 개입이외에도 기혼 여성들의 스트레스 적응과정에는 주변으로부터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이해와 존중과 같은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므로 배우자를 포함한 주위사람들과의 관계형성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과정도 치료적인 효과에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헌수(1976). 우울증의 유발요인에 관한 임상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15, 335-371.
- 송봉용(1979). 퇴행기 우울증의 유발요인에 관한 임상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18, 302-311.
- 유계준, 신승철, 전상배, 윤관수, 김만권, 문수재, 이민준(1991). 한국인의 우울에 관한 역학적 조사, *대한 의학협회지*, 34(2), 172-180.
- 유성은, 권정혜(1997). 완벽주의적 성향, 사회적 지지,

-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식이 중년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완상, 백기청, 양병환, 김광일(1994). 서울시 가정주부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척도 제작에 관한 예비연구 정신건강연구, 8, 212-224.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IV*. Washington, DC: Author.
- Aneshensel, C. S. (1985). The natural history of depressive symptoms: implications for psychiatric epidemiology. *Research in Community and Mental Health*, 5, 45-75.
- Aneshensel, C. S. (1986). Marital and employment role-strain,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among adult women. In S. Hobfall (Ed.), *Stress, social support, and women* (pp. 99-114). Washington, DC: Hemisphere.
- Bromberger, J. T., & Matthews, K. A.(1996). A "Feminine" mode of vulnerability to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middle aged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 591-598.
- Folkman, S, & Lazarus, R. S.,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219-239
- McGrath, E. Keita, G. P, Strickland, B. R, & Russo, N. F.(Eds.). (1990). *Women and Depression :Risk factors and treatment issue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Nolen-Hoeksema, S.(1987). Sex differences in unipolar depression: Evidence and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101, 259-282.
- O'Hara, M.(1986). Social support, life events and depression during pregnancy and puerium.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3, 569-573.
- Rubin, L. (1983). *Intimate stranger: men and women together*. New York: Harper & Row.
- Sherer, M., Maddo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1982). Th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Vanfossen, B. E.(1981). Sex differences in the mental health effects of spouse support and equit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urs*, 22,(June), 130-143.
- Weissman, M., Leaf, P. J, Bruce, M. L., & Florio, L.(1988). The Epidemiology of dysthymia in five communities: Rates, risks, comorbidity, and treatment.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5, 815-819.
- Wethington, E. & Kessler, R C.(1989). Employment parental responsibility,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Family Issues*, 10, 527-546.

부 록

부록 1. 연령집단별 스트레스 항목별 경험보고 비율

연령	20대 (N=68)	30대 (N=295)	40대 (N=130)	50대 (N=92)
1. 자신의 생활과 관련하여				
1) 신체적 질병	45.5 ^a	45.6	55.0	63.2
2) 신체적 노화과정 (기력, 기억력 감퇴)	53.8	61.0	75.4	86.4
3) 신체적 외모에 대한 불만	73.0	62.9	63.9	55.1
4) 가족과 떨어져 생활을 함 (본인 또는 가족의 해외 취업, 전근, 장기출장, 학교 진학, 유학등)	14.1	18.6	28.0	37.3
5) 신앙생활의 변화 (신앙생활의 중단, 시작 또는 전환)	27.7	27.5	35.8	36.8
6) 취미나 클럽활동상의 변화 (새로운 것을 시작, 중단 또는 전환)	33.3	32.2	39.3	39.8
7) 승진누락 (직장이 있는 경우)	9.4	8.2	10.5	18.2
8) 직장 사회생활에서의 과중한 업무 (직장이 있는 경우)	34.6	35.2	38.3	25.4
9) 직장, 사회생활에서의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이 있는 경우)	31.4	35.9	28.2	30.0
2. 남편과 관련하여				
1) 남편의 잦은 이직 혹은 직장에 대한 불만족	35.8	33.5	31.4	31.0
2) 남편의 정년퇴직	0.0	0.0	9.3	26.2
3) 남편의 원치 않았던 퇴직(실직)	1.5	12.7	13.0	21.7
4) 남편의 직장동료 및 상사와의 불화	24.2	29.2	28.2	23.0
5) 남편의 승진누락	1.5	12.6	17.8	15.5
6) 남편의 사업 실패	4.5	18.4	20.0	23.5
7) 남편의 과도한 음주	31.8	32.7	34.3	34.1
8) 남편의 도박	1.5	10.9	9.2	10.7
9) 남편의 낭비습관	14.9	15.8	18.3	15.3
3. 자녀와 관련하여				
1) 학업성적의 저하	8.8	37.5	61.5	34.9
2) 학교생활 적응 어려움	8.9	25.5	34.8	24.4
3) 부모에게 반항적인 행동	22.8	47.1	45.0	38.6
4) 자녀의 이성교제	0	10.9	30.4	42.9
5) 자녀의 친구관계 문제	10.5	32.6	44.5	31.8
6) 자녀의 시험실패	1.8	21.6	43.7	50.6
7) 자녀의 결혼 혹은 분가	0	5.2	3.8	17.8
4. 남편과의 관계				
1) 남편과의 의견 및 성격차이로 인한 불화, 다툼	59.1	56.1	56.2	65.2
2) 남편의 구타	0.0	10.7	11.4	12.6
3) 자신에 대한 남편의 무관심	31.8	26.9	30.2	34.5
4) 가족에 대한 남편의 무관심	20.0	23.8	27.2	27.6
5) 남편의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	23.9	26.1	25.9	29.2
6) 남편의 의도 및 부정	3.0	9.8	11.5	12.8
7) 이혼 혹은 별거	0.0	5.7	5.4	9.4
5. 부모 및 친지들과의 관계				
1) 시부모와의 불화	22.4	29.0	30.3	31.4
2) 시댁식구와의 불화	26.2	31.3	31.6	33.0
3) 친정부모와의 불화	11.9	16.3	16.4	18.2
4) 친정식구와의 불화	16.4	17.8	28.8	30.7
6. 경제적인 문제				
1) 수입의 감소	22.7	32.8	36.8	44.8
2) 금전상의 손실(사기, 사업실패)	3.0	25.1	29.4	34.5
3) 집값 상승, 물가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50.0	52.9	55.1	44.9
4) 값을 능력이 없을 정도의 큰 빚	10.4	14.4	14.3	23.3
7. 가족 및 주위 사람들의 질병				
	36.2	33.2	38.5	37.5
8. 가족 및 주위 사람들의 사망				
	8.1	17.6	20.2	23.8

^a %

부록 2. 전업주부와 취업주부간 스트레스 항목별 경험보고 비율

취업유무	전업주부 (N=392)	취업주부 (N=171)
1. 자신의 생활과 관련하여		
1) 신체적 질병	50.0 ^a	50.3
2) 신체적 노화과정 (기력, 기억력 감퇴)	68.1	65.6
3) 신체적 외모에 대한 불만	62.2	66.0
4) 가족과 떨어져 생활을 함 (본인 또는 가족의 해외 취업, 전근, 장기출장, 학교 전학, 유학 등)	22.9	22.1
5) 신앙생활의 변화 (신앙생활의 중단, 시작 또는 전환)	30.7	30.4
6) 취미나 클럽활동상의 변화 (새로운 것을 시작, 중단 또는 전환)	37.9	31.8
7) 승진누락 (직장이 있는 경우)	0.0	13.6
8) 직장 사회생활에서의 과중한 업무 (직장이 있는 경우)	0.0	59.6
9) 직장 사회생활에서의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이 있는 경우)	0.0	53.6
2. 남편과 관련하여		
1) 남편의 잦은 이직 혹은 직장에 대한 불만족	32.2	33.1
2) 남편의 정년퇴직	10.5	7.3
3) 남편의 원치 않았던 퇴직(실직)	11.3	14.7
4) 남편의 직장동료 및 상사와의 불화	26.1	30.3
5) 남편의 승진누락	12.7	11.8
6) 남편의 사업실패	16.3	20.5
7) 남편의 과도한 음주	31.6	34.8
8) 남편의 도박	8.5	10.4
9) 남편의 남비습관	15.0	17.7
3. 자녀와 관련하여		
1) 학업성적의 저하	39.8	39.0
2) 학교생활 적응 어려움	24.1	26.7
3) 부모에게 반항적인 행동	42.1	43.2
4) 자녀의 이성교제	19.6	16.7
5) 자녀의 친구관계 문제	34.0	27.5
6) 자녀의 시험실패	30.5	24.5
7) 자녀의 결혼 혹은 분가	6.2	5.7
4. 남편과의 관계		
1) 남편과의 의견 및 성격차이로 인한 불화, 다툼	58.1	57.5
2) 남편의 구타	9.9	8.8
3) 자신에 대한 남편의 무관심	29.0	29.8
4) 가족에 대한 남편의 무관심	23.4	26.9
5) 남편의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	25.9	26.9
6) 남편의 외도 및 부정	9.8	8.9
7) 이혼 혹은 별거	5.2	5.0
5. 부모 및 친지들과의 관계		
1) 시부모와의 불화	29.2	28.2
2) 시댁식구와의 불화	31.8	30.2
3) 친정부모와의 불화	16.0	16.7
4) 친정식구와의 불화	23.3	19.9
6. 경제적인 문제		
1) 수입의 감소	32.9	36.8
2) 금전상의 손실(사기, 사업실패)	23.3	25.5
3) 집값 상승, 물가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53.7	47.5
4) 값을 능력이 없을 정도의 큰 빚	14.2	17.3
7. 가족 및 주위 사람들의 질병	35.9	37.5
8. 가족 및 주위 사람들의 사망	17.4	18.6

^a %

The Vulnerability of married women on depression: Focused on life stress and coping processes

Eun Jeong Kim · Kyung-Ja Oh · Eun Hye Ha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vulnerability of married women on depression through their experiences of life stress and coping processes. A total of 591 women between the ages of 20 and 50 who were married with children were given a questionnaire which assess the following: the level of depressive symptoms(CES-D), the type and level of life stress, coping style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elf efficacy. The results showed: 1) The mean of CES-D was 17.87 and 23.0% were higher than 24 on CES-D. 2) More than a half of the sample reported stress about marital dispute, economic strains, aging and dissatisfaction with their appearances. 3) Ages of 40 and 50 reported more stress with their children than any other age group. 4) Employment, age, low level of SES and education and number of children were associated with the high level of stress. 5) The level of stress, coping style,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elf efficacy altogether explained the variances of concurrent depressive symptoms significantly. The results indicated the vulnerability of married women to depression and identified the psychosocial risk factors for depression of married woman.